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0. 16.(수) 11:00,
(지면) 2024. 10. 17.(목) 조간

배포 2024. 10. 16.(수) 06:00

수산생물 전염병, 초기에 잡는다!

- 10.17(목)~18(금), 해수부·수품원·지자체 합동 도상(모의)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2024년 수산생물 전염병 도상(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국적 음식문화, 관상어·양서류 등 이색 희귀 반려동물의 유행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외래 동물을 매개로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염병 발생 시 방역·살처분* 등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동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도상 훈련을 시행하게 되었다.

* 제1종 법정전염병 대상 : 급성간체장괴사병(새우의 간·체장이 괴사), 잉어봄바이러스병(봄에 주로 발생하며 출혈, 아가미 괴사, 장내 출혈 등 동반)

이번 훈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진행으로 방역조치 등 이론적 실무 교육(1일차)과 실제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2일차)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둘째 날 도상 훈련은 살처분 대상 전염병의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해수부·수품원·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대응반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제와 같게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 방역기관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초기에 조치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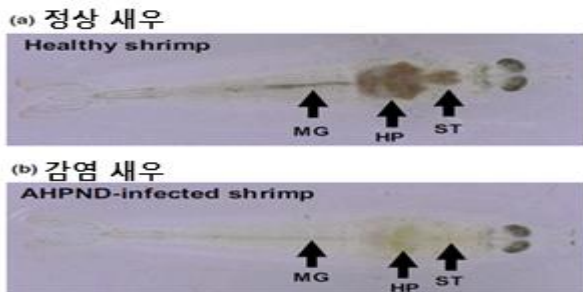
총괄 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625)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책임자	과 장	권문경 (051-400-5670)
		담당자	연구관	홍성열 (051-400-5675)

참고

살처분 대상 제1종 법정전염병

□ 급성간췌장괴사병(Acute HematoPancretic Necrosis Disease, AHPND)

- (원인)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중 독소 생성 관련 유전자 (Pir A, Pir B)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균주
- (폐사율) 발병 시 10일, 늦어도 30~35일 이내 100%에 이르기도 함
- (현황) '16년 최초 발생, 이 후 양식장에서 발생
- * (발생추이) '16(9건, 최초 발생), '17(1건), '18(1건), '21(2건), '23(15건), '24.9.(4건)



<AHPND에 감염된 새우의 임상 증상>

□ 잉어봄바이러스병(Spring Viraemia of Carp, SVC)

- (원인) 랍도바이러스속에 속하는 잉어봄바이러스(Spring viraemia of carp virus, SVC)로 11~17℃의 봄철에 주로 발생
- * 10℃ 이하 또는 22℃ 이상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낮음
- (폐사율) 발병 시 2~3주내 40~70%
- (현황) '90년대 최초 발생, 이 후 양식장, 자연계에서 발생
- * (발생추이) '16(1건/자연수계), '20(1건/자연수계), '22(1건/양식시설), '23(1건/양식시설)



SVC에 감염된 잉어(체표 출혈) 및 이스라엘 잉어(복부팽만 및 아가미 기저부 출혈)
<출처: HJ Schlotfeldt>